

증언에 관한 리드의 비환원주의*

한 상 기**

주제분류 인식론

주요어 증언, 흄, 리드, 반 클리브, 지식, 정당화, 원천, 환원주의, 비환원주의, 경신성 원리, 진실성 원리

요약문

사실상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증언에 의존한다. 따라서 증언은 지식과 정당화의 원천으로서 인식론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도 역사적으로 증언은 인식론에서 감각지각이나 추론, 기억 등 지식과 정당화의 다른 원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시되거나 경시되어왔다. 이러한 무시나 경시의 한 가지 이유는 증언에 관해 로크나 흄 같은 철학자들이 전개한 전통적 견해들이 크게 작용했다. 로크는 증언에 의존하는 관행을 노골적으로 비난해왔다. 흄은 증언의 중요성에 대해 주목했지만, 증언의 신뢰성 기반이 귀납논증에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 귀납논증은 다시 지각적 증거에 근거를 둔 관찰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흄의 견해에 따르면, 증언은 지식과 정당화의 이차적 원천이지 일차적 원천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흄은 증언에 관해 환원주의적 견해를 제창했다.

그렇지만 흄과 동시대인인 리드는 흄과 정반대되는 견해를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특정 보고가 그르다는 것을 의심할 좋은 이유를 갖고 있지 않는 한 그 증언을 한 사람의 말을 언제나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증언에 관한 리드의 기본 입장은 흄과 달리 신뢰라는 입장이다. 리드의 견해에서는 증언에 기초한 믿음이 일차적인 인식적 격위를 가지며, 단순히 이차적인 격위를 갖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증언에 기초한 믿음의 정당화는 지각이나 추론 등의 다른 원천들로 환원될 필요가

* 이 논문은 2012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북대학교 철학과 교수.

없고, 그 자체로 일차적인 기초적 원천으로서의 격위를 갖는다. 이렇게 보면 증언에 관한 리드의 견해는 흠과 대비시켜서 **비환원주의**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증언에 관한 리드의 비환원주의를 소개하고, 반 클리브의 견해를 토대로 비판적으로 음미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우선 증언에 대한 신뢰나 의존과 관련하여 리드의 비환원주의를 지탱하는 두 가지 원리, 즉 경신성 원리와 진실성 원리에 대한 반 클리브의 해석을 제시한 다음, 두 원리가 어떻게 리드의 비환원주의를 뒷받침하는지 설명할 것이다. 반 클리브는 지각과 증언의 유사성을 탐구한 다음, 둘 사이의 유사성이 심리학에서 인식론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살핀다. 그런 다음 반 클리브는 지각이 인식적으로 기초적 원천이 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리드의 비환원주의가 반 클리브의 지적대로 적절한 정당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그래서 정당화되지 못한다고 결론지을 것이다.

1. 머리말

사실상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증언** (testimony)에 의존한다.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 우리가 가는 곳, 심지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조차도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알게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태어난 날, 우리 가족의 식구들 사이의 관계조차도 직접 지각하여 안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것들이다. 따라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증언에 의해 얻은 정보를 빼고 나면 우리는 그 정보를 거의 알 수 없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증언은 지식과 정당화의 원천으로서 인식론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전통적으로 인식론에서는 증언에 관해 써진 논문이나 책이 거의 없었다. 이러한 무시나 경시의 한 가지 이유는 증언의 격위에 관해 로크와 흄 같은 철학자들이 전개한 전통적 견해들이 크게 작용했다. 로크는 증언에 의존하는 관행을 노골적으로 비난해왔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몹시 신빙성 없는 정보의 원천이며, 우리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는 진정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흄은 로크보다는 타협적이다. 흄은 증언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지만, 증언의 신뢰성 기반이 귀납논증에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 귀납논증은 다시 지각적 증거에 근거를 둔 관찰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흄의 견해에 따르면, 증언은 지식과 정당화의 이차적 원천이지 지각, 내성, 추론처럼 일차적이고 기초적인 원천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흄의 견해에 따를 때 증언에 기초한 믿음의 정당화는 궁극적으로 지각 등을 비롯한 다른 기초적 원천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그러한 믿음은 직접적 믿음, 즉 지각이나 이성에 의한 믿음에 기초를 둘 때만 정당화된 믿음이나 지식의 격위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흄은 증언에 관해 **환원주의적 견해** (reductionist view)를 주장했으며, 그 후 전통적 인식론자들에게 많은 영

향을 끼쳤다.

그렇지만 흄과 동시대인인 토머스 리드(T. Reid)는 흄과는 정반대되는 견해를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특정 보고가 그르다는 것을 의심할 좋은 이유를 갖고 있지 않는 한 그 증언을 한 사람의 말을 언제나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증언에 관한 리드의 기본 입장은 흄과 달리 **신뢰**라는 입장이다. 리드의 견해에서는 증언에 기초한 믿음이 일차적인 인식적 격위를 가지며, 단순히 이차적인 격위를 갖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증언에 기초한 믿음의 정당화는 지각이나 추론 등의 다른 원천들로 환원될 필요가 없고, 그 자체로 일차적인 기초적 원천으로서의 격위를 갖는다. 이렇게 보면 증언에 관한 리드의 견해는 흄과 대비시켜서 **비환원주의(non-reductionism)**라 할 수 있다.

리드의 비환원주의는 최근 사회인식론의 대두와 더불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감각 지각, 기억, 이성, 내성 같은 다른 원천들이 대체로 개인 인식자의 비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증언 같은 원천은 다른 사람들(화자)과 나(청자) 사이의 사회적 관계나 특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사회인식론은 지식이나 정당화된 믿음과 사회적 관계의 관련성에 대해 개념적이고 규범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사회 인식론이 지식이나 정당화의 원천으로서 증언에 주목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고, 그런 점에서 리드의 비환원주의는 사회인식론자들의 주목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증언에 관한 리드의 비환원주의를 소개하고, 비판적으로 음미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우선 증언에 대한 신뢰나 의존과 관련하여 리드의 비환원주의를 지탱하는 두 가지 원리, 즉 경신성 원리와 진실성 원리를 제시한 다음, 두 원리가 어떻게 그의 환원주의를 뒷받침하는지 설명할 것이다. 그런 다음 두 원리가 심리학적 기술의 차원을 넘어서서 인식론적 차원의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보고, 그러한 해석 아래서 리드의 비환원주의가 정당화되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2. 증언에 대한 의존

증언에 관한 논의는 무엇보다도 증언의 인식적 격위에 관한 물음이 핵심을 차지한다. “증언이란 무엇인가?”와 같이 증언 개념의 의미를 묻는 물음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 즉 다른 사람들로로부터의 증언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정당화된 믿음이나 지식을 획득하는가?”의 물음이 증언에 관한 논의에서는 더 핵심 역할을 한다. 이 물음에 대해 로크는 가장 강한 비관적 견해를 주장하였다. 로크의 견해에 따르면, 모든 지식은 직접적이어야 한다.¹⁾ 그래서 어떤 믿음도 증언을 기초로 해서 인식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증언은 인식자가 직접 지각하거나 추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직접적 지식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 견해에 대한 반론은 이 견해가 나 자신의 생일에 대한 지식조차도 지식이 못되게 배제함으로써 회의주의를 함의한다는 것이다. 내가 내 생일을 아는 것은 내가 태어난 것을 직접 지각해서가 아니라 부모나 가족 등 다른 사람들로로부터 전해 들어 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흄은 지식이나 정당화와 관련하여 증언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어찌 보면 흄은 증언의 중요성에 주목한 최초의 철학자였을 수도 있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의 증언과 목격자 및 구경꾼의 보고에서 도출된 추론보다 더 흔하고 더 유용하며 심지어 인생에 필요한 종류의 추론은 없다.”²⁾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증언을 기초로 해서 정당화될 수 있으며,

1) 슈미트(F. Schmitt)는 로크의 이런 견해를 강한 개인주의라 불렀다. 여기서 핵심 물음은 증언이 감각 지각처럼 개인적 지식의 원천인지 아닌지 하는 것이다. 감각 지각의 경우에 개인 인식자는 지각을 통해 지각의 대상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게 된다. 그래서 로크는 모든 지식이 지각처럼 직접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증언은 우리 자신의 직접적 지식의 원천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는 증언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로크는 증언에 의존하는 관행에 대해 비난을 해왔다. 로크에 따르면, “우리 뇌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떠돌아다니는 것은 그 의견들이 어찌다 옮겨 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조금도 더 많이 알게 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Locke(1975), 제1권 제4장; Schmitt(1998) 참조.

2) Hume(1999), 제10.5절.

우리의 많은 믿음은 바로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이 증언에 의존한다. 그렇지만 그에 따르면, 것처럼 증언에 기초한 모든 믿음은 궁극적으로는 비증언적으로 정당화되는 믿음들에 기초해 정당화되어야 한다. 흄이 제시하는 귀납적 버전의 약한 개인주의에 따르면, 증언에 기초한 믿음은 증언이 신뢰할 만하거나 신빙성 있다는 비증언적으로 정당화되는 믿음을 기초로 하여 정당화된다. 그리고 이 믿음은 다시 비증언적으로 정당화되는 믿음들로부터의 귀납에 의해 정당화된다.

흄의 견해에 대한 가장 중요한 반론은 흄이 이른바 “순환 문제”(circularity problem)³⁾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순환 문제의 요점은 우리가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비증언적 기초로 귀납논증을 고려할 경우에, 이 귀납논증의 결론에 대한 믿음은 또 다시 증언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증언이 제시하는 보고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모두 직접 검사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귀납이라는 기초는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믿음을 정당화하기에는 너무 약하다고 반론은 주장한다.

어쨌든 흄은 누군가가 신뢰할 만하다는 좋은 증거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우리가 그 사람의 증언을 신뢰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리드(T. Reid)는 정반대되는 견해를 제시한다. 리드는 지식과 정당화에서 증언의 역할을 중시했을 뿐만 아니라 증언에 일차적인 기초적 원천으로서의 격위를 부여한다. 그는 우리가 증언적 믿음의 정당화를 지각적 믿음을 정당화하는 경우처럼 파생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는 우리가 타인으로부터의 증언이 그르다는 것을 의심할 좋은 이유를 갖고 있지 않는 한 그 증언을 한 사람의 말을 언제나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증언에 대한 리드의 기본 입장은 신뢰라는 입장이다. 이 점에서 리드는 흄과 견해를 달리 한다. 흄의 기본 입장은 의심이라는 입장이다.

3) 흄의 견해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되는 “순환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상기 옮김(2011), 91~2면을 볼 것.

증언의 인식적 격위에 대한 흄과 리드의 이런 견해 차이는 결국 증언에 관한 철학자들의 견해를 **환원주의** 대 **비환원주의**로 나누어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흄에 따르면, 증언에 기초한 믿음의 정당화는 궁극적으로 지각, 내성, 기억, 추론 등의 다른 기초적 원천들로 환원되어야 하며, 그래서 증언은 이차적 원천으로서의 격위를 갖는다. 반면에 리드에 따르면, 증언은 이차적인 파생적 원천이 아니며, 그 자체로 기초적 원천으로서의 격위를 갖는다. 따라서 흄으로 대표되는 환원주의자와 리드로 대표되는 비환원주의자 사이의 핵심 쟁점은 증언에 기초한 믿음이 감각 지각에 기초한 믿음 못지않게 인식적으로 기초적인 또는 근본적인 원천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아닌지의 문제이다. 나아가 흄의 환원주의는 지식에 대한 **개인주의적** 연구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증언은 우리에게 지식을 제공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보 제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적 정보를 획득할 경우에만 그렇다. 리드는 이 개인주의 측면을 부정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과거 실적에 관해 무언가를 알지 못하고도 다른 사람의 말을 믿는 일이 정당화된다. 리드의 이런 견해는 지식에 대한 **사회주의적** 측면이 자리 잡고 있다.

3. 리드의 비환원주의: 진실성 원리와 경신성 원리

리드의 비환원주의는 현대에 들어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그동안 흄 식의 환원주의적 견해가 지배적이었던 흐름에서 사회인식론의 대두와 더불어 인식론자들이 증언에 주목하면서 빚어진 현상으로 보인다. 증언 및 리드의 비환원주의에 주목한 현대 철학자들로는 래키(J. Lackey), 오디(R. Audi), 퓨머턴(R. Fumerton), 소사(E. Sosa), 골드버그(S. C. Goldberg), 슈미트(F. Schmitt), 반 클리브(J. Van Cleve)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반 클리브는 리드의 비환원주의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논문은 반 클리브의 견해를 토대로 리드의 비환원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제 반 클

리브의 견해를 토대로 하여 리드의 비환원주의를 음미해보자.

리드의 비환원주의에 대한 반 클리브의 논의는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는 먼저 리드의 진실성 원리와 경신성 원리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믿음 형성의 메커니즘으로서의 지각과 증언의 유사성에 대한 리드의 생각을 검토한 다음, 이 유사성이 심리학적 차원에서 인식론적 차원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먼저 진실성 원리와 경신성 원리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자. 리드는 『인간 정신에 대한 탐구』(*Inquiry into the Human Mind*)에서 그의 증언이론의 두 가지 핵심 원리, 즉 진실성 원리와 경신성 원리를 도입한다.

우리가 사회적 생물이어야 할 것을 의도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정보에 의해 우리 지식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받아야 할 것을 의도했던 지혜롭고 자비로운 조물주는 이런 목적에서 서로 잘 들어맞는 두 가지 원리를 우리의 본성에 심어왔다.

이 원리들 중 첫 번째는 진실을 말하는 경향이고, 우리의 실제 생각을 전달하도록 언어의 표시들을 사용하는 경향이다.⁴⁾

지고의 존재가 우리에게 심은 또 다른 원초적 원리는 다른 사람들의 진실성을 신용하려는 성향이고, 그들이 우리에게 말한 것을 믿으려는 성향이다. 이것은 전자의 대응물이다. 그리고 전자가 **진실성 원리**(the principle of veracity)라 불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적절한 이름이 없어서 우리는 이 원리를 **경신성 원리**(the principle of credulity, 輕信性 原理)라 부를 것이다.⁵⁾

이 두 원리는 그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알지 못했을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말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하는 표시가 되는지를 설명할 때 핵심 요소들이다.

우선 진실성 원리부터 생각해보자. 진실성 원리에 대한 리드의 표현은 직접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촉발한다. “진실을 말하려는 경향”이란

4) Reid(1997), 193면.

5) 같은 책, 194면.

말로 리드는 **실제로** 진리인 것을 말하려는 경향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화자가 진리라고 **믿는** 것을 말하려는 경향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 인용구에서 “진실을 말하는 경향”이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단서를 달지 않은 것을 보면 전자를 시사하지만, 두 번째 인용구에서 “우리의 실제 생각을 전달하다”라는 표현을 보면 후자를 시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리드는 어떤 것을 의도했을까?

여기서 반 클리브의 해석을 따라가 보자. 반 클리브는 진실성 원리에 대한 이 두 해석을 각각 V1, V2라 부르고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⁶⁾

V1: 만일 A가 p를 말한다면, p가 옳다.

V2: 만일 A가 p를 말한다면, A는 p를 믿는다.

반 클리브는 그 뒤에 나오는 단락들에서 그 원리가 전개되고 옹호되는 것을 읽어보면 리드가 V2를 의도했음이 분명하다고 말한다.

우리는 우리의 실제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진실을 말하고, 언어의 기호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 . 진실은 언제나 최고의 것이며, 정신의 자연스러운 배출물이다. 진실은 기술이나 훈련을 요구하지 않고 유도나 유혹도 요구하지 않지만, 우리가 자연스러운 충동에 굴복하는 것일 뿐이다. 반대로 거짓말은 우리의 본성에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⁷⁾

당신은 그저 다른 어떤 것을 말하기 때문에 거짓말쟁이인 것이 아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노력에서 당신이 그르다고 믿는 것을 말하는 일이며, 이것은 진실성 원리가 V2로 이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만을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

6) Van Cleve(2006), 51면. 반 클리브의 해석은 이보다는 약간 더 정교한 표현을 사용하여, V1을 “만일 A가 p를 말한다면, p가 옳다(가 사실인 경향이 있다)”로, V2를 “만일 A가 p를 말한다면, A는 p를 믿는다(가 사실인 경향이 있다)”로 제시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논의의 편의상 필자가 단순화했다.

7) Reid(1997), 193면.

는 경향이 있다.8)

이제 동반 원리인 경신성 원리를 살펴보기로 하자. 경신성 원리에 대해 리드는 “지고의 존재가 우리에게 심은 또 다른 원초적 원리는 다른 사람들의 진실성을 신용하려는 성향이고,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믿으려는 성향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원리에 대해서도 반 클리브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A를 화자, B를 청자라고 하고, 경신성 원리에 대한 두 해석을 각각 C1, C2라고 하면, 경신성 원리는 다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9)

C1: 만일 A가 p를 말한다면, B는 p를 믿는다.

C2: 만일 A가 p를 말한다면, B는 A가 p를 믿는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리드는 경신성 원리로 이 두 해석 중 어떤 것을 의도했을까? 맥락을 보면 리드는 C1을 의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의 인용구에서 그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믿는 성향”에 대해 이야기한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대체로 세계에 관한 어떤 사실이지 단순히 그들이 이런저런 것을 믿는다는 취지의 자서전적 사실이 아니다. 게다가 경신성 원리는 그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실제적 이득을 제공한다고 리드는 말한다.

증언 문제에서 인간 판단의 균형은 본성상 믿음 쪽으로 기울는 경향이 있음이 명백하다. 그래서 저울의 반대쪽 접시에 담긴 것이 전혀 없을 때 그 믿음 자체 쪽으로 향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담화에서 발언되는 어떤 명제도 이성애 의해 검토되고 시험되기까지는 믿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들이 들은 것의 1000 분 1 부분도 믿을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불신과 쉽

8) 물론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술에 취했거나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하는 증언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9) 이 표현 역시 반 클리브는 좀 더 복잡하게 제시했지만, 앞의 V1, V2처럼 필자가 단순화했다.

사리 믿지 않는 태도는 우리를 미개인들보다도 더 나쁜 조건에 처하게 만든다.¹⁰⁾

경신성의 실제적 이점은 나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보고하는 것을 믿는 일에서 나온다. 그 이점은 그저 그들 자신이 그것을 믿는다고 믿는 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리드는 경신성 원리를 C1로 의도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리드는 진실성 원리로 V2, 경신성 원리로 C1을 의도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고(V2),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옳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C1).¹¹⁾

그렇다면 리드가 이렇게 해석되는 진실성 원리와 경신성 원리로 하려고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리드는 당대에 관습적으로 통용되던 견해를 거부했다. 리드는 만일 우리가 오로지 흠이 제안한 귀납에만 의존해야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증언에 대해 실제로 믿는 대다수 것을 믿는 일에 대해 거의 근거를 갖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상황이 특히 어렵다. 흠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말해주는 무언가를 승인하기 전에 먼저 포괄적 경험을 획득하고, 어른들의 신빙성에 대한 귀납논증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많은 어린이는 필요한 증거를 모두 수집하기 전에 아마 자동차에 치이거나 독물에 중독될 것이다. 다행히도 인간은 증언을 통해 훨씬 더 쉽게 지식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두 가지 본유적 경향을 갖는다고 리드는 진단했다. 그 두 가지 경향이란 바로 진실성 원리와 경신성 원리이다. 진실성 원리는 진실을 말하려는 우리의 본능적 경향이다. 경신성 원리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그저 믿으려는 경향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신빙성을

10) Reid(1997), 95면.

11) 이 대목에서 필자는 반 클리브의 해석과 견해를 달리한다. 반 클리브는 두 원리가 서로 잘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V1과 C1, V2와 C2의 조합이 모두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해석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반 클리브는 필자가 해석한 것처럼 V2와 C1의 조합이 아니라 리드가 궁극적으로 네 가지 해석 모두를 염두에 두었다고 주장한다. 자세한 내용은 Van Cleve(2006), 52면 참조.

시험할 기회를 갖기 전에도 경신성의 경향을 가지며, 리드는 우리가 그런 경향을 갖는 것은 실제적 이점을 가져다주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4. 지각과 증언의 유비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지각과 증언의 유사성을 검토해보자. 이 대목에서 반 클리브의 논의는 매우 자세하고 복잡하다. 그러나 리드의 원래 설명과 반 클리브의 논의를 종합하면 지각과 증언의 유사성에 대한 리드의 견해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리드는 우리가 진실을 말하려는 본유적 경향(진실성 원리)과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그저 믿으려는 경향(경신성 원리)을 갖기 때문에 증언에 기초한 믿음이 정당화되거나 지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그는 흄과 달리 증언이 우리의 정당화된 믿음이나 지식의 이차적 원천이 아니라 일차적 원천이라고 주장하는 점에서 비환원주의적 견해를 제창하고 있다. 흄의 경우에는 증언에 기초한 믿음이 정당화될 수 있지만, 그 믿음은 궁극적으로는 지각이나 추론 같은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원천으로 환원되어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리드는 이처럼 증언이 지식이나 정당화의 일차적 원천이라는 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각과 증언이 매우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리드는 지각과 증언의 유비를 통해 비환원주의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리드는 『인간 정신에 대한 탐구』 서두에서 감각에 의해 주어진 자연의 증언과 언어에 주어진 우리의 동료 인간들의 증언 사이에 현저한 유사성이 있다고 공표한다. 이 유사성은 각각의 경우에 ‘증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아주 큰 유사성이다. 그래서 그는 두 종류의 증언에 도움이 되는 정신의 원리들을 함께 살피는 일에 착수한다. 그가 보는 유사성은 지각이 두 종류로 나누어지고, 언어도 두 종류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두 집합의 유사성으로 이루어진다.¹²⁾

우리는 지각을 **원초지각**(original perception)과 **획득지각**(acquired perception)으로 구별해왔다. 그리고 언어를 **자연언어**와 **인공언어**로 구별해왔다. 획득지각과 인공언어 사이에는 커다란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원초지각과 자연언어사이에는 더 큰 유사성이 있다.¹³⁾

두 유사성을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구별 각각에 관해 살펴보자.

먼저 원초지각과 획득지각을 살펴보자. 리드는 우리의 지각이 두 종류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어떤 지각은 자연적이고 원초적이며, 또 어떤 지각은 획득된 지각이고 경험의 열매이다.”¹⁴⁾ 원초지각은 우리가 어떤 학습에 선행해 갖는 지각이다. 내가 손에 딱딱하고 둥근 공을 지닐 때, 내가 받는 촉각은 딱딱하고 둥근 대상에 대한 직접적 믿음을 일으킨다. 어떤 학습도 요구되지 않는다. 나는 본유적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적당한 감각적 상황에서 내가 그 공에 대해 생각하고 믿는다. 이런 것은 원초지각의 예이다. 반면에 우리 지각 중 어떤 것들은 획득된다. 경험에 의해 나는 내 눈에 나타난 어떤 이차원적 대열의 다각형들이 3차원적 입방체에 대한 촉지각을 수반할 것임을 배운다. 정육점 주인은 어떤 시각적 모습의 돼지고기가 저울에 올려놓으면 일정한 무게를 지닐 것이라는 것을 배운다. 처음에 귀납추리나 축적된 경험에 기초한 연상의 문제였던 것이 나중에는 직접적이고, 비추리적인 믿음의 문제가 된다. 이런 것은 획득지각의 예이다.

리드는 또한 자연언어와 인공언어를 구별하고 있다. 인공언어란 약정에 의해, 또는 “계약과 협약에 의해” 의미가 고정되는 어떤 표시들의 체계를 의미한다. 자연언어란 말로 그는 “모든 계약이나 협약에 앞서 그저 자연의 원리들에 의해 모든 사람이 이해하는 의미를 갖는” 작지만 필수 불가결한 표시체계를 의미한다.¹⁵⁾ 예컨대 미소는 승인이나 찬성에 대한

12) Van Cleve(2006), 54면.

13) 같은 책, 190면.

14) 같은 책, 171면.

자연언어의 표시이다. 리드는 자연언어가 없는 한 인공언어는 결코 고안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논한다. 왜냐하면 인공언어는 계약을 요구하는데, 계약은 어떤 종류의 언어를 갖지 않은 생물들에 의해서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자연언어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인공언어가 일단 고안되고 나면 승인이나 불찬성의 자연언어 표시들이 없는 신참자가 배울 수 없다는 것을 비슷한 방식으로 주장할 수 있다.¹⁶⁾

이제 이렇게 두 집합의 구별을 하고 나서 리드는 두 가지 유사성, 즉 획득지각과 인공언어 사이의 커다란 유사성과 원초지각과 자연언어 사이의 더 큰 유사성을 지적한다. 이 네 가지 현상 모두에서 표시와 표시된 사물들이 있는데, 인간의 정신은 표시에 대한 이해로부터 표시된 사물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간다. 리드가 지적한 여러 가지 유사성과 차이성은 모두 표시와 표시된 것 사이의 관계 및 우리가 이 관계에 대해 알게 만드는 수단과 관련되어 있다.

원초적 지각에서 표시들은 감각, 예컨대 우리에게 우리 손에 있는 딱딱하고 둥근 공에 대한 생각과 믿음을 일으키는 촉각이다. 자연은 표시와 표시된 것 사이의 실제적 연관을 확립해왔다. 그리고 또한 자연은 우리에게 표시에 대한 해석을 가르쳐왔다. 그래서 경험에 앞서서 표시는 표시된 사물을 암시하며, 표시된 사물에 대한 믿음을 만든다.¹⁷⁾ 다시 말해서 정신이 표시에 대한 이해로부터 표시된 사물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본유적 원리, 또는 이미 우리에게 배선된 원리에 의한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자연언어에서 표시는 얼굴 표정, 신체의 몸짓, 목소리의 억양이다.”¹⁸⁾ 표시된 것은 다른 사람의 정신의 사고와 성향들

15) 같은 책, 51면.

16) 여기서 자연언어와 인공언어에 대한 리드의 구별은 오늘날 우리의 상식적 구별과 약간 다르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어나 영어 같은 언어를 우리는 자연언어로 분류하겠지만, 그는 인공언어로 분류할 것이다.

17) Reid(1997), 190면.

18) 같은 책, 같은 면.

이다. 원초지각의 경우처럼 자연언어에서도 자연은 표시와 표시된 것 사이의 연관을 확립해왔으며, 우리에게 경험에 앞서서 표시에 대한 해석을 가르쳐왔다. 유아는 미소가 승인의 표시이고, 찡그린 얼굴이 회의 표시임을 본능적으로 안다. 원초지각과 자연언어의 또 다른 유사성은 두 경우에 표시들이 “모든 기후, 모든 국가에서 똑같은 의미를 갖는다”¹⁹⁾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촉감각은 인간에게 딱딱함을 가리키고, 어떤 얼굴 표정은 모든 문화에서 승인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획득지각과 인공언어 사이의 유사성은 어떤가? 획득지각에서 표시는 감각이거나 우리가 감각에 의해 지각하는 것들이다. 앞의 원초지각과 자연언어 경우들에서처럼 표시와 표시된 것 사이의 연관은 자연에 의해 확립된다. 그러나 앞의 경우와 달리 이 경우에 우리는 그 연관을 경험과 귀납에 의해 발견해야 한다. 쇠막대기의 붉은 빛이 열을 표시한다는 것이나 해변에 있는 사람의 작은 크기가 그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표시한다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들이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체질에 썩어져 있지 않다. 그렇지만 일단 그 연관을 배우고 나면, 그 표시는 자동으로 표시된 것을 암시하며, 우리는 쇠막대기의 열이나 그 사람이 떨어진 거리를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편 인공언어에서는 “표시들은 분절된 소리인데, 이 소리와 표시들이 표시하는 것 사이의 연관은 인간의 의지에 의해 확립된다. 그리고 모국어 배울 때 우리는 이 연관을 경험에 의해 발견한다.”²⁰⁾ 그러므로 인공언어는 표시와 그 표시가 의미하는 것 사이의 연관이 경험에 의해 알려진다는 점에서 획득지각과 비슷하다.

리드는 획득지각과 인공언어가 서로 닮았지만 원초지각과 자연언어와는 다른 또 다른 측면을 지적한다. "인간의 표정과 몸짓의 자연언어는 물론이고 우리의 원초지각은 인간 체질의 특수한 원리들로 분해되어야 한다. 여기서 강조할 것은 특수한 원리에 대한 것이다. 어떤 종류의 감각

19) 같은 책, 191면.

20) 같은 책, 같은 면.

이 딱딱함을 의미한다는 것은 하나의 특수한 원리에 의해서이고, 쟁그림이 불승인을 표현한다는 것은 또 다른 특수한 원리에 의해서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의 획득지각, 그리고 인공언어에 의해 우리가 받는 정보는 인간 체질의 특수한 원리들로 분해되어야 한다.”²¹⁾ 후자의 경우에 우리가 배우는 원리들, 예컨대 붉은 빛깔이 열을 가리킨다는 것은 어떤 원리만큼이나 특수하다. 그러나 리드의 요점은 그러한 특수한 원리들이 우리 정신에 프로그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 정신에 프로그램된 원리들은 일반적 원리들이며, 우리는 이 일반적 원리들에 의해 특수한 원리를 배운다. 이 일반적 원리들 중 하나는 귀납이다.

리드는 표시에 의한 지식이 되기 위해 두 가지 필요조건이 있다고 생각한다. 즉 표시와 표시된 것 사이에 일정한 연관이 있어야 하고, 표시의 출현이 표시된 것에 대한 믿음을 일으켜야 한다. 표시에 의한 지식의 다양한 사례에서 이 필요조건들이 어떻게 만족되는지 확인하는 일이야말로 리드에게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 표시가 자연에 의해서 표시된 것과 결합되는가, 아니면 약정에 의해서 결합되는가? 앞에서 리드는 우리의 본성에 심어진 두 가지 원리, 즉 진실성 원리와 경신성 원리를 제시하였다. 진실성에 의해 표시와 표시된 것 사이에는 신빙성 있는 연관이 있고, 경신성에 의해 우리는 표시를 이해할 때 표시된 것에 대해 믿는다.

리드가 이처럼 지각과 증언의 유사성을 환기시키는 이유는 간단하다. 지각의 경우에 우리는 보통 지식과 정당화의 일차적 원천으로서의 격위를 부여한다. 그런데 지각을 통해 지식이나 정당화된 믿음에 도달하는 경우의 메커니즘을 살펴볼 때 증언을 통해 지식이나 정당화된 믿음에 도달하는 경우와 유사하다. 다시 말해서 정당화된 믿음 형성의 메커니즘 차원에서 볼 때 지각과 증언은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각에 기초적 원천으로서의 격위를 부여한다고 했을 때, 증언에도 비슷한 격위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증언은 기초적 원천으로서의 격위를 갖는다.

21) 같은 책, 같은 면.

5. 증언에 기초한 믿음이 인식적으로 기초적인가?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것을 발언할 때 우리가 그것을 믿게 만드는 원리들에 대한 리드의 견해를 살펴보았다. 이것은 어찌 보면 증언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되는 심리적 메커니즘에 대한 리드의 기술이나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반 클리브는 이러한 리드의 견해에 대해 인식론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증언을 기초로 하여 획득된 믿음을 정당화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 믿음을 지식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반 클리브에 따르면, 리드의 경우에 지각과 증언을 기초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할 때 어디까지가 심리적 메커니즘에 대한 기술이고 어디까지가 인식론적 규범에 관한 이야기인지가 분명하지 않아 보인다.²²⁾ 다시 말해서 심리학과 인식론이 분화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우선 감각 지각의 경우에 리드는 둘 다를 의도한 것처럼 보인다. 감각 경험에 의해 촉발되는 물리적 대상에 대한 믿음은 심리적으로 직접적일 뿐만 아니라 인식적으로 기초적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그런 믿음은 어떤 추론이나 배경정보에 대한 의존 없이 경험에 의해 직접적으로 일으켜질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정당화된 믿음들에 그 정당성을 의존하지 않고 정당화된다. 리드에 따르면, 우리의 환경에서 사물들의 관찰가능한 특징에 관한 믿음은 제일원리(first principle)로 기능한다. 제일원리는 우리가 다른 것들을 정당화할 때 그것들에 호소하지만 그것들 자체는 다른 어떤 것에 호소하지 않고 정당화되는 원리들이다. 제일원리는 “저기에 나무가 있다” 같은 지각의 진술에 대해 너무 거창한 이름처럼 들릴 수 있지만, 리드는 그런 명제들이 우리의 경험적 지식에서 수학의 공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²³⁾

22) Van Cleve(2006), 59면.

23) 같은 책, 172면.

그렇다면 리드가 말하는 증언과 감각의 유비를 확장하여 증언에 기초한 믿음이 인식적으로 기초적이라는 점에서 감각 지각에 기초한 믿음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당신에게 p를 말한다는 단순한 사실이 당신이 p를 믿는 일을 조건부로 정당화되게 만들고, 그래서 당신에게 p에 대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해 증언에 대해 환원적 견해를 가진 흄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리드는 그렇다고 말한다.

리드가 증언적 믿음에 긍정적인 인식적 격위, 즉 기초적 격위를 수여한다는 것은 『인간의 지적 능력에 관한 시론』(*Essays on the Intellectual Powers of Man*)에서 증언에 대한 그의 논의를 기초로 찾아볼 수 있다. 제일원리에 관한 장에서 리드는 증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또 다른 제일원리는 나에게서 사실 문제에서 인간 증언, 그리고 심지어 의견 문제에서 인간 권위에 마땅한 어떤 고려사항이 있다는 것이다.”²⁴⁾ 계속해서 이 원리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가 증언이나 권위에 관해 추론할 수 있기 전에 우리가 알기 위해 관심을 갖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 우리는 다른 증거를 가질 수 없다. 다른 어떤 증거도 없다.”²⁵⁾ 그래서 증언은 증거의 원천이다. 이런 내용은 개연성에 관한 장에서 다시 논의되며, 여기서 리드는 증언을 일종의 개연적 증거로 논의한다. 그에 따르면 지혜로운 조물주는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를 제시할 수 있기 전에 인간 정신에 이 증거에 의존하는 경향을 심었다. 누군가가 보통 과거에 진실을 말해왔다는 것은 그가 말하는 것을 믿는 데 대한 이유이겠지만, 그가 그렇게 말하는 일은 내가 이 이유를 가질 수 있기 전에도 증거를 수여한다. 증언적 믿음은 이유가 없는 경우조차도 명백하다. 그래서 만일 어린이들이 증언이나 권위에 대해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다면, 그들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지식의 결여로 멸망해야 한다.

24) Reid(2002), 487면.

25) 같은 책, 557~8면.

이렇게 해서 리드는 증언을 단순히 믿음의 원천이 아니라 정당화된 믿음이나 지식의 원천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드러난다. 게다가 증언은 설령 믿는 사람이 그의 믿음에 대해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이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증언에 기초한 믿음은 리드에게 인식적으로 기초적인 원천의 자격을 갖는다.

그렇다면 리드의 이런 견해는 정당화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반 클리브는 리드의 견해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그가 리드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제시하는 논증은 다음과 같다.²⁶⁾

- 전제 A: 만일 원천 S가 인식적으로 기초적인 믿음의 원천이라면,
 S 선천적 원천이어야 한다.
 전제 B: 증언적 믿음은 선천적 원천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증언은 인식적으로 기초적인 믿음의 원천이 아니다.

요컨대 이 논증은 인식적으로 기초적인 믿음의 원천이 선천적 원천이어야 하는데, 증언은 선천적 원천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적인 믿음의 원천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일단 이 논증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전제들이 모두 옳을 때 결론은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제들이 과연 옳은가 하는 점이다.

전제 A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할 강력한 근거가 있는데 폴록(J. Pollock)이 그 근거를 제공하였다. 폴록은 우리의 지식이 주제에 따라 각 영역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 영역들에는 물리적 세계에 대한 지식, 과거에 대한 지식, 우연적인 일반적 진리에 대한 지식, 타인의 정신에 대한 지식, 선천적 지식 등이 포함된다. 물리적 대상에 관한 믿음은 지각을 그 원천으로 갖는다. 과거에 관한 믿음은 기억을 그 원천으로 갖는다. 미래나 관찰되지 않은 대상에 관한 믿음은 귀납 등을 그 원천으로

26) 원래 반클리브의 논증은 이것보다는 약간 더 복잡하지만, 여기서는 취지만 살려 축약하여 간명하게 표현하였다. 반클리브 논증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Van Cleve(2006), 61면 참조.

갖는다. 이 점이 중요한 것은 지식의 각 영역들이 그 영역에 특유한 지식의 원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 주제에 관한 다른 모든 방식의 지식이 의존하는 것은 바로 그 주제에 관한 앞의 방식이다. 우리는 기억이나 사진처럼 지각 이외의 다른 수단에 의해 물리적 세계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지만, 만일 우리가 지각을 통해 물리적 세계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면 우리는 이 다른 방식들로도 지식을 가질 수 없다. 폴록에 따르면, 기초적 믿음의 원천은 자율적이다. 즉 다른 원천들에 의거하지 않고 그 영역에서 지식이나 정당화를 제공한다. 동시에 기초적 믿음의 원천은 궁극적이다. 즉 이 원천의 도움 없이는 다른 어떤 원천도 그 주제에 관해 지식이나 정당화를 제공하지 못한다.²⁷⁾

폴록의 논증은 압축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²⁸⁾

1. 지식의 원천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그 원천과 원천이 전달한다고 가정되는 사실들 사이에 연관을 확립할 수 없는 한 진정한 원천이 아니다.
2. 그러한 연관은 (a) 어떤 믿음이 그 원천에 의해 산출됨과 그 믿음의 옳음 사이에 신빙성 있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귀납적으로 확립되거나, (b) 그 연관이 선천적으로 성립할 경우에만 확립될 수 있다.
3. 기초적 원천은 궁극적이므로 (a)는 배제된다.
4. 그러므로 지식의 기초적 원천은 선천적 원천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전제 A는 옳다고 생각할 강력한 근거가 있는 셈이다.

전제 B는 어떤가? B는 증언에 기초한 믿음과 그 믿음의 진리성 사이에 선천적 연관이 없다고 말한다. 한 가지 이유는 선천적 연관이 필연적으로 성립해야 하지만, 증언적 믿음과 그 믿음의 진리성 사이에 필연적 연관이 없다는 것인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이것이 흄이 주장한 내용의

27) Pollock(1974), 6면.

28) 이 논증은 폴록이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 내용을 간추려 논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Pollock(1974), 6~7면 참조.

일부였다. 흄은 인간 증언과 증언된 사건 사이의 연관이 “그 자체로 다른 어떤 것만큼이나 거의 필연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²⁹⁾고 지적한다. 그렇지만 이 대목에서 흄의 견해와 상관없이 폴록은 선천적 연관을 부정할 또 다른 강력한 이유를 제시하였다.

폴록은 지식의 원천을 정당화하는 유일한 방식이 그 원천과 지식 사이에 어떤 종류의 선천적(논리적) 연관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그 선천적 연관이 “지식 주장들에 포함된 개념이나 진술의 의미로부터 생겨야 한다”³⁰⁾고 주장한다. 전통적으로 이 요구는 환원적 분석으로 이끌었다. 이를테면 외부세계 진술에 대한 증거로 기능하는 경험에 의거해 외부세계 진술의 진리 조건을 분석하는 현상주의적 분석이 그 예이다. 폴록은 환원적 분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이 대안에서 진술의 의미는 진리 조건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당화 조건에 의해 주어진다. 그에 따르면, “x가 어떤 방식으로 보인다”가 “x가 붉다”의 정당화 조건이라는 것은 ‘x가 붉다’의 **의미의 부분**이다. 어떤 것이 붉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는 부분적으로 어떤 것이 그런 방식으로 보인다는 사실이 그것이 붉다고 믿는 일을 정당화한다는 것을 아는 일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폴록의 이 전략을 증언의 경우에 적용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진술 ‘p’의 의미를 부분적으로 ‘A가 p를 말한다’가 p의 정당화 조건이라는 것을 아는 일에 의해 이해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A가 p를 말한다’는 그 안에 ‘p’를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p’를 ‘A가 p를 말한다’에 의해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A가 p를 말한다’를 ‘p’를 이미 이해한 경우에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술의 정당화 조건을 그 의미의 성분으로 나타내려는 폴록의 프로그램은 정당화 조건이 증언적 보고일 때는 수행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증언을 기초적 원천으로 받아들이는 일에 대한 반대사례이

29) Hume(1977), 75면.

30) Pollock(1974), 8면.

다. 기초적 믿음의 원천은 선천적이어야 하는데, 증언은 선천적 원천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증언이 인식적으로 기초적 원천이라는 리드의 견해는 결국 정당화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리드가 증언에 기초한 믿음의 심리적 메커니즘에 대해 말한 거의 모든 것을 승인할 수 있다. 그래서 경신성 원리와 진실성 원리를 승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게다가 경신성의 엄청난 실제적 이점에 관해 그가 말한 것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있다. 어린이들은 그들이 듣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해 이유 없이 믿는 경신적 국면을 거친다. 그렇지만 이제 이 믿음들은 인식적 의미가 아니라 실용적 의미에서만 정당화된다고 리드는 주장해야 한다.

6. 맺음말

리드는 지식과 정당화의 원천으로서의 증언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증언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적 격위, 즉 인식적으로 기초적 원천이라는 격위까지 부여했다. 증언에 대한 리드의 이러한 설명은 전통적 인식론에서 주류를 이루어왔던 흄의 환원주의적 설명과 대비를 이루어 비환원주의를 대표해왔다. 흄 역시 증언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우리가 증언을 승인하는 일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보여주려 하였다. 그렇지만 흄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과거에 신뢰할 만했다는 것을 검사할 수 있을 경우에만 그 다른 사람의 증언을 승인하는 일이 정당화된다. 이에 비해 리드는 다른 사람의 과거 실적을 알지 못하고도 다른 사람의 말을 승인하는 일이 정당화된다고 주장했다.

진실성 원리와 경신성 원리로 표현된 인간의 본유적 경향은 심리적 차원에서 설득력이 매우 높은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가 경신성의 많은 실제적 이점에 대해 말한 내용은 증언의 중요성을 새삼 환기시키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어린이들이 그들이 듣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해 이유 없이 쉽사리 믿는 경신적 태도를 지닌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

며, 이런 태도 없이는 그들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반 클리브는 심리학과 인식론의 구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언에 기초한 믿음이 인식적으로도 기초적 믿음의 원천이라는 리드의 주장이 결국은 정당화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이러한 지적이 비환원주의는 그르고, 환원주의는 옳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함의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리드 식의 비환원주의적 견해 외에도 다른 방식의 비환원주의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환원주의적 견해와 비환원주의적 견해의 이점을 살리고 단점을 버리는 형태로 양자를 절충하거나 종합하는 견해가 제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흄과 리드가 증언에 관해 상반된 견해를 지니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핵심 신조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둘 다 지식의 원천으로서의 증언이 매우 중요하며, 우리가 증언을 통해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보았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드의 견해에 대한 반 클리브의 지적에 대해 성공적인 반박 논증이 제시되지 않는 한 현재 시점에서 리드의 비환원주의는 적절한 정당화 논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북대학교)

참고문헌

- 한상기 옮김(2011), 『지식론 입문』, 서광사. 이 책의 원래 제목은 D. O'Brien(2006), *An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Knowledge*, Polity Press Ltd.
- Adler, J. E.(1994), "Testimony, Trust, Knowing", *Journal of Philosophy*, 91.
- Audi, R.(1997), "The Place of Testimony in the Fabric of Knowledge and Justification",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34.
- Coady, C. A. J.(2002), "Testimony and Observation", Huemer, M.(2002), *Epistemology: Contemporary Readings*(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Fricker, E.(1995), "Telling and Trusting: Reductionims and Anti-Reductionism in the Epistemology of Testimony", *Mind*, 104.
- Huemer, M.(2002), *Epistemology: Contemporary Readings*(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Hume, D.(1977), *An Enquir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ed., Eric Steinberg(Indianapolis: Hackett), first published in 1748.
- Hume, D.(1999), *An Enquir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ed., T. Beauchamp(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first published in 1748.
- Lackey, J.(2006), "Introduction", Lackey, J. & Sosa, E.(2006), *The Epistemology of Testimony*(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ocke, J.(1975),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ed., P. H. Nidditch(Oxford Clarendon Press, 1975).
- Pollock, J.(1974), *Knowledge and Justific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eid, T.(1997), *An Inquiry into the Human Understanding on the*

- Principles of Common Sense*, ed., Derek R. Brookes(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first published in 1764.
- Reid, T.(2002), *Essays on the Intellectual Powers of Man*, ed. Derek R. Brookes(University Park, Pa: Pennsylvania University Press, first published in 1785.
- Schmitt, F.(1998), "Social Epistemology", in *Routledge Encyclopedia of Philosoph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Van Cleve, J.(2006), "Reid on the Credit of Human Testimony", in Huemer, M.(2002), *Epistemology: Contemporary Readings*(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T. Reid's Non-reductionism on Testimony

Sangki Han

Virtually everything we know depends in some way or other on the testimony of others. Thus, testimon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ources of knowledge and epistemic justification. Despite the vital role that testimony occupies in our epistemic lives, traditional epistemological theories focused primarily on other sources, such as sense perception, introspection, reason, and memory, with relatively little attention devoted specifically to testimony. One reason for this neglect may lie in the traditional views, by such philosophers as Locke and Hume, about the status of testimony. Locke has particularly disparaging words to say about the practice of relying on testimony. Hume has noticed the importance of testimony, but he has regarded testimony as simply one form of inductive evidence among others, which is in turn based on the perceptual evidence. According to Hume, testimony is the second-hand source of knowledge and justification. Therefore, we can say that Hume has proposed reductionist views on testimony.

Thomas Reid, a contemporary of Hume, suggests approach that is diametrically opposed to Hume's views. He argues that we should always accept someone's testimony unless we have good reason to suspect that a particular report is false. Unlike Hume, his default position is one of trust. For Reid, testimony has status of immediate, first-hand, and basic source of knowledge and justification. Thus, Reid has propounded non-reductionist views on testimony.

Reid introduces the two key principles of his theory of testimony in the *Inquiry into the Human Mind*. These principles are called the

principles of veracity and credulity. They are the key elements in his non-reductionist account of how we successfully acquire justified belief or knowledge on the basis of testimony from others. This paper first aims to outline Reid's non-reductionist views on testimony, and examine them critically based on Van Cleve's view. Van Cleve point out that it is not always clear in Reid where psychology of testimony stops and epistemology begins. Very well, is his account of testimony just a piece of descriptive psychology, or is it meant as normative epistemology? Van Cleve believes his account of testimony is meant as both. Finally, I examine his non-reductionist views of testimony critically under that interpretation.

Key words: testimony, Hume, Reid, Van Cleve, knowledge, justification, source, reductionism, principles of veracity and credulity

한상기 e-mail: 1020skhan@hanmail.net

투 고 일	2012년 04월 18일
심 사 일	2012년 05월 18일
게재확정	2012년 05월 21일